

이오플로우, 곤지암 공장에 이오판치 전 자동화 생산라인 신규 설치

▶ 연간 370 만 개 패치 생산능력 확보... 전년比 패치 생산능력 10 배 확대

[2023-02-02]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곤지암 신공장에 연 3 백만 개 패치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생산라인을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앞서 연간 최대 70 만 개의 패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구축, 지난 1 월 초 국내 GM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여기에 금번에 신규 설치한 전 자동화 생산라인까지 인증을 완료하면 연간 약 370 만 개의 패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존 외주 공장의 연간 최대 30 만 개 생산능력 대비 약 10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대적인 생산시설 증설에 대해 이오판치 해외 수출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확대라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전 자동화 라인보다 생산성을 더 높이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시켜 생산량 증대와 제조원가의 추가 절감을 목표로 하는 2 세대 전자동화 라인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유럽 지역에 제품을 런칭했고,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와 하반기 인도네시아 제품 런칭도 계획하고 있어 많은 패치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오플로우의 곤지암 신공장은 유럽, 북미 등 세계 의료기기 선진국이 요구하는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확장 준공은 오는 3 월 말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오판치 유럽 판매를 위해 획득한 CE 인증에 이번에 설치한 신규 생산라인을 포함한 곤지암 신공장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조기철 생산본부장 겸 곤지암 공장장은 “이번 생산시설 증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이제 막 설치를 마치고 신규 설비에 요구되는 밸리데이션과 인증을 거쳐 2024 년부터 실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규 설치한 전 자동화 생산라인은 가동이 시작되면 투입되는 인원이 최소화돼 인건비 절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고, 패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 안정화와 이에 따른 원가 절감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